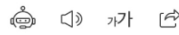


## 네이버·쿠팡·11번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자율규제 마련

입력 2022.07.14. 오전 8:22

임유경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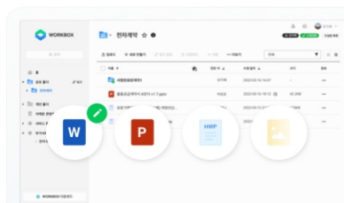
ㅣ 접근통제 강화·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의 내용 담아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상품 구매를 확정 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등 접근통제 강화하고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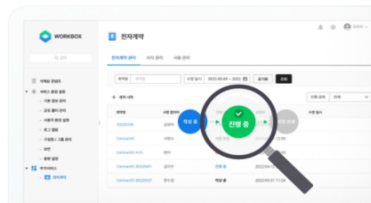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10개사를 대표해 한 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 네이버클라우드, 워크박스 전자계약 서비스 출시

이승현 2022년 7월 13일



**WORKBOX에서  
손쉽게 작성하는 전자계약**



**한 눈에 파악하는  
전자계약 진행 현황**

## 네이버·카카오, 2분기 실적 둔화 전망... 광고·커머스 사업 '주춤'

입력 2022.07.14. 오후 2:53

박수현 기자 >



팬데믹 특수 끝... 국내 광고 시장 위축 전망

인건비도 '발목'... 네카 올해 연봉 재원 ↑

"콘텐츠, 메타버스 외 새 먹거리 찾아야"

## 공정위까지 나선 네이버·쿠팡 '멤버십' 논란...왜?

입력 2022.07.14. 오후 5:50

최다래 기자 >



ㅣ 공정위, 표시광고법 혐의로 현장 조사...가입자 수·혜택 고지 등 지적

이커머스 업계가 충성 고객 확보 전략으로 치열한 멤버십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쿠팡과 네이버가 멤버십을 둘러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과 네이버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자 수·네이버 현대카드 혜택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자보다 일반 이용자가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

입력 2022.07.14. 오전 11:04

박수현 기자 >

카카오가 14일 이사회를 열고 흥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공동센터장을 카카오 각자 대표로 신규 선임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각자 대표 체제로의 전환의 목적이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CAC에서 맡았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장 전략을 총괄할 계획이다. 현재 맡고 있는 CAC 공동센터장과 카카옴팩트 재단 이사장 직도 겸임한다. 남궁훈 대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글로벌 확장을 주도한다.

홍 대표는 “카카오가 보유한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카카오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비즈니스도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 대표는 “앞으로 홍 대표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때로는 함께 고민하며 카카오의 글로벌 확장과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sunBiz

PICK ⓘ

## 우아한형제들, 내년부터 근무장소·시간 모두 ‘자율’ 전환

입력 2022.07.14. 오전 9:45

 배동주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내년 근무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근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라면 해외에서도 업무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근무 시간도 자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근무 대신 월 단위 총량만 충족한다면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이번 근무형태 변경은 2015년부터 진행한 근무형태 실험의 일환이다. 우아한형제들은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4.5일제를 도입했다.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도입했고, 올해는 주 32시간제를 도입했다. 지난 6월부터는 주 1회 사무실 출근으로 변경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 주는 근무 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 결국 중단

입력 2022.07.13. 오후 3:03 - 수정 2022.07.13. 오후 3:57

 김성현 기자 >

 5  26

구글은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 허용키로...방통위는 사실 조사 착수

구글 인앱결제(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앱 내에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공해온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섰다.

구글로부터 자사 정책 위반 사유로 지적 받았던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구글은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업데이트 거절 행위를 두고, 사실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